Wacker, API 사업 성공확률 높다!

L-Cysteine 생산량 확대 25-30% 점유 기대 … 바이오테크 사업 주력

Wacker-Chemie가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P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Wacker는 정밀화학 생산능력 확대조사에 나섰으며 바이오테크 제품 L-Cysteine 및 Cyclodextrin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또 여러 키랄 의약품 중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Wacker는 이미 1개 제품을 메이저 의약품 생산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cker의 정밀화학 매출액은 2002년 9700만유로(1억1000만달러)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바이오테크 제품 매출액이 1400만유로를 기록했다.

정밀화학 사업은 최근 창설된 Wacker Specialties 사업부에 포함돼 있으며 Wacker는 2006년 정밀화학 매출액을 2배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Wacker는 고급 의약품의 원료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9년 Burghausen에 유기합성(Organic Synthesis) 260입방미터 플랜트를 건설했으나 아직 cGMP 인증을 100%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Wacker는 FDA 인증 획득 또는 API 생산기업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자체생산으로 비용을 줄일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Wacker의 유기합성, 정밀화학 기술, 바이오테크 전문성 및 Silane Chemistry 경험 등을 고래해 볼 때 Wacker가 의약품 원료성분 시장 입지를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Wacker의 새로운 키랄 중간체인 Alpha Methyl Cysteine Hydrochloride는 바이오테크, 유기합성 및 Silane 등의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다.

Custom 합성 매출액은 정밀화학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Catalogue 유기화학 및 Silane이 차지하고 있다.

Wacker는 아미노산 L-Cysteine 생산량은 확대할 계획이다. L-Cysteine은 Biotika가 Wacker의 Microbial Fermentation 프로세스를 이용해 슬로바키아 Slovenska Lupca에서 생산하고 있다. Wacker는 L-Cysteine 수요가 큰 폭으로 신장할 것으로 보고 L-Cysteine을 식품, 조미료 및 의약품 시장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Wacker는 앞으로 3년 후 세계 Cysteine 시장의 25-30%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 Cysteine 시장은 현재 약 45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Wacker는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식물성 원료 또는 합성 원료를 사용해 Cysteine을 생산하고 있다.

Wacker는 아이오와주 Eddyville 소재 바이오테크 프로세스 Cyclodextrin 3000톤 플랜트를 Debottleneck할 계획인데, 바이오테크 프로세스 Cyclodextrin은 고업용 및 가정용 제품으로 응용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된다. Wacker는 최근 ISP와 판매계약을 체결해 ISP가 Wacker의 Cyclodextrin을 독점 판매하게 될 전망이다.

Wacker는 기능성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Sulfur 함유 키랄 Molecule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2004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5개 바이오테크 제품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12/24>